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최대 54.5%까지 할인

조달청,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공공물자 특가대전'
전기제품·사무·교육·생활용품 일반 국민도 구매 가능

조달청(청장 정무경)이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최대 54%까지 할인된 상품을 판매하는 '공공물자 특가대전'을 개최한다. 공공물자 특가대전은 조달청 주관으로 공공기관에 납품 중인 업체중 참여 업체를 모집해 공공기관과 일반국민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다. 할인 판매 대상 상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174개사 166종

2,139개이다. 일부 상품은 최대 54.5%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참여 상품 평균 할인율은 10.3%로, LED 가로등 기구 등 기계·전기제품을 비롯해 노트북 등 사무·교육·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일반국민도 같은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를 원하는 국민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게재된 업체와 연결해 직접 구매하면 된다. 할인 상품은 오는 20일부터 종합쇼

핑몰(shopping.g2b.go.kr)의 '할인 행사/기획전' 메뉴에서 '공공물자 특가대전'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다. 조달청은 5만여 개 공공기관에 할인 상품 안내서(온라인 카탈로그)를 배포한다.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게시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할인상품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판로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매출 확대에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역경제119' 가동

LX, 경제회복·인력지원·국민후원 등 3개 분야 12개 과제 선정



한국토정정보공사(LX)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에 앞장선다. 사진은 화훼농가 살리기 행사.

한국토정정보공사(LX, 사장직무대행 최규성)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에 앞장선다. LX는 지난달 초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민생경제회복, 적재적소 인력지원, 국민후원 119 등 3개 방향 12개 실천과제를 도출해 운영해 오고 있다. '지역경제 119'라는 프로젝트 명이 붙은 이번 대응 방안에는 지역물품 구매와 예산조기집행, 코앞으로 다가온

415선거 사무지원과 코로나 정보지원, 전국적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와 방역물품 후원 등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13일 LX에서 발표한 지난 4주간 주요 비상대응 실적은 살펴보면, 공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향하고자 하는 국민회복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은 물론 서울과 부산, 인천과 경기 등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4,600만원 이상의

화훼와 농산물을 구입하고, 본사와 지역본부에서 전통시장 51군데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상품권 구입과 소비에 앞장섰다. 또한, 적재적소에 인력지원을 위해 전북지역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415선거 투·개표 사무지원에 직원 59여 명이 투입하고, LX만의 역량을 이용해 코로나 맵 서버이용료를 3개월간 지원한다. 이외에도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헌혈에 190명이 참여했으며, 지역방역 활동에도 86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후원을 위한 발 빠른 대응도 눈에 띈다. LX는 전국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27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매달 1,00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6개월간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달 임원진의 임금반납 선언에 이어 이달에는 적극적인 직원모금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방역 여건 개선에도 신속히 앞장서 방역물품구입과 식품꾸러미 등의 지원에 3,100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최규성 사장직무대행은 "LX는 지난 주까지 지원계획을 통해 214건의 크고 작은 지원을 해 왔다"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국민모두가 살기 좋은 안전한 국가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면역력 강화에 좋은 '검정 곡물'

농진청, 블랙데이 맞아 건강 기능성 홍보·이름 맞춰기 행사 진행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4일 '블랙데이'를 맞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검은색 곡물의 건강 기능성을 알리는 한편, 검정 곡물 이름 맞춰기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블랙데이는 매년 밸런타인데이(2.14)와 화이트데이(3.14)에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으며 서로를 위로한다고 알려진 비공식 기념일이다.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 암 예방과 항산화 및 노화방지, 콜레스테롤 저하, 시력 개선 등에도 효과가 있다. 검정깨는 메티오닌, 트립토판 같은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노인성 치매를 예방한다. 각종 비타민, 무기질 및 양질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검정땅콩은 세포의 활성 산소 제거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20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 가족 건강 챙기는 검정 곡물, 넌 누구냐?!' 행사를 열고 참여 댓글을 받는다. 국립식량과학원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cropkorea)에서 게시물을 확인하고 장단을 댓글로 남기면 30명을 추천해 볶은 검정땅콩 '혹생'을 증정한다. 검은색 계열의 음식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Anthocyanin)'이 들어 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롤 저하, 혈관 보호, 항암, 케양을 예방하는 효능이 탁월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흑미, 검정콩, 검정깨, 검정땅콩 등의 검은색 곡물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이다. 흑미에 존재하는 안토시아닌은 높은 항산화 활성과 암, 염증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감마-오리자놀 성분이 몸속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검정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피로감을 개선한다.

과도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획조정과장은 "면역력 강화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요즘,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우리 검정 곡물을 섭취하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올원뱅크 등서 퀴즈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농협은행의 모바일 플랫폼인 NH스마트뱅킹과 올원뱅크에서 이달 30일까지 한달간 '4월 농협은행 단골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 응모는 NH스마트뱅킹과 올원뱅크의 추천 콘텐츠인 NH프로포즈에서 할 수 있고, 퀴즈 정답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661명에게 NH여행상품권 100만원(1명), 올리브영 상품권 1만원권(100명), 스타벅스 커피 쿠폰(560명)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정답에 대한 힌트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검색창에 '농협은행 단골퀴즈' 또는 '단골퀴즈'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NH농협은행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NH스마트뱅킹과 올원뱅크, 고객센터(☎1600-2800)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해드려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농협·군부대 등과 협력
인력중개센터 추가 설치·군 인력 등 일손돕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농협·군부대 등과 협력해 인력중개센터 추가 설치, 군 인력 등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전국적으로 배인공수분, 감자 파종, 양파 수확, 마늘 제조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업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농촌인력중개센터 2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70개소로 선정·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 자원봉사자 감소 등이 우려됨에 따라 아래 지역에 인력중개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농번기 일손 지원에 적

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군부대 인력을 농촌일손돕기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군부대 인력지원이 필요한 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 준수 등을 점검한 후 가까운 군부대에 인력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와 지자체(각 시·도 및 시·군)는 지난 3월 25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왔으며, 각 시·군은 농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인력을 알선하거나 농촌일손돕기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일선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농작업 추진현황 및 인력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인력부족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